

#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mily Resource Transfers from Adult Children to their Parents with Dementia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조교수 고선강\*\*

Dept of Family Culture and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Koh, Sun-Kang

## 〈목 차〉

- |                         |                    |
|-------------------------|--------------------|
| I. 문제 제기                | IV. 분석 및 결과        |
| II. 이론적 배경 및<br>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br>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arent-to-child financial transfers, providing household chores, and inheritance on financial transfers and time transfers from adult children to their elderly parents with dementia. Analyzing data from the sample of 343 adult children of parents with dementia, this study finds a strong positive effect of prior parent-to-child financial transfers on child-to-parent financial transfers under controlling parent characteristics, respondent characteristics and sibling's transfers to their parents. The effects of providing household chores and inheritance on time transfers are also positively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oint out the importance of reciprocity in resource transfer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with dementia.

**Key Words :** 자원이전(resource transfers), 가정자원이전(family resource transfers), 치매부모(parent with dementia), 교환이론(exchange theory), 경제적 자원(financial resource), 시간자원(time resource)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c00191)

\*\* 주저자, 교신저자 : 고선강 (skoh@sungshin.ac.kr)

## I.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6).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노인부양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은 자녀들의 몫이며 효도의 관점에서 가정 안에서 맡는 것을 당연시해 왔다. 그러나 서구적인 가치관의 유입, 가족구조와 형태의 변화와 저출산현상으로 인해 예측되는 부양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노인부양이 더 이상 개별가정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제도로서 개별가정의 노인부양을 지원·해결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제도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의 노인들은 이러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노인가구의 소득은 자녀들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 자원이전의 방향도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주어지는 이전소득보다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되는 이전소득의 빈도가 훨씬 높다(김연정, 1998; 김지연, 2006; 김지경·송은경, 2004). 일반적인 노부모 부양과 비교해서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부모에 대한 개별가정의 부양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크며, 이는 비단 경제적 자원이전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사회와 달리 서구사회에서는 성장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훨씬 빈번하다(MacDonald, 1989; Soldo & Hill, 1995). 따라서 세대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도 부모세대로부터 자녀세대로의 자원이전이 주요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인구로 편입하면서 사회보장기금의 부족과 수혜 시작 연령이 늦춰지는 등 사회제도에 의한 노인부양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성장한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사적 경제적 자원이전 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개별가정의 사적인 자원이전에 의해 노인부양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배희선(1998)이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김지연(2006)과 김지경·송은경(2004)이 경제적 자원교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부모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현재의 자원이전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횡적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치중하여 부모 자녀 간 자원이전의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에 비교적 소홀하였다. 자원이전의 호혜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자원교류'라는 이름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나(김지연, 2006; 김지경·송은경, 2004) 단기간의 동시적인 자원교류만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자원이전의 호혜성에 대한 검증으로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이전은 같은 형태의 자원으로 상호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이나 가정의 특정자원의 충분성 정도에 따라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교환되는 특성이 있다. 즉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가 성장한 후 노부모에게 시간자원을 이전하는

것, 자녀양육기에 부모로부터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을 받은 자녀가 노부모가 치매를 앓게 되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 등이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원의 상호 이전, 장기적 관점의 자원 교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자원 이전 및 노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 등을 독립적으로 연구하거나, 사회적 지원의 여러 유형인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돌보기 지원을 함께 연구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 자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장기적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의 장기적 호혜성을 검증하고, 상이한 특성을 갖는 자원들 간의 호혜적 자원이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자원이전이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여 세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자원 종류의 다양성 고려하여 경제적 자원과 시간자원 간의 이전을 연구하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동일한 종류의 자원, 특히 경제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간 자원이전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다른 형태의 자원을 통한 자원이전의 장기적 호혜성을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자녀 간의 자원이전

세대 간 자원이전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학문분야별로 다르게 사용되어 왔다. 경제학적 접근은 세대 간 ‘자원이전’을 경제적 자원의

이전 한정된 개념을 사용한 반면, 사회학적 연구들은 사회적 지원의 개념으로 연구해 왔다. 최근 가정관리학적 접근은 자원이전의 개념에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포함시키며 자원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한다.

경제학에서는 확대가족 내의 세대 간 자원이전을 사적자원이전(private transfer)이라는 개념으로 연구해 왔다. 이는 사회경제적 제도를 통해서 한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는 공적자원이전(public transfer)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공적자원이전이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사적자원이전은 확대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재분배와 세습에 관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적자원이전은 금융자산, 현금, 부동산 등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의미하며, 세대 간 자원이전(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의 방식에 있어서도 자녀로부터 부모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자원이전보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금융자산의 이전이나 유산 상속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자원이전의 주요 흐름이 나이든 세대로부터 젊은 세대로 향하는 것이며, 특히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흔한 사적이전의 형태로 알려져 왔다. MacDonald(1989)가 “가계 간 이전(inter-household transfer)”을 현금, 자산 또는 가시적 자원들을 가계 간에 주고받는 것으로 정의한 것처럼 자원이전이 금전적 자원의 이전에 한정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자원이전(resource transfer)은 가족구성원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이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사회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 금전적 지원(선물, 돈 빌려주기 등), 도구적 지원(쇼핑, 가사일 돕기, 개인적인 돌보기 제공 등)을 포함한다(Marks & Lambert, 1997). 사회적 지원에 경제적 자원의 이전도 포함되지만, 정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다. 노부모

를 위한 자녀의 돌보기 제공, 거동이 불편한 가족원에 대한 돌보기 제공 등이 사회학적 접근의 자원이전 연구의 주요 관심주제이다. 이러한 돌보기 제공은 시간자원 이전에 한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사회학적 접근의 돌보기 제공에 관한 연구는 제공한 시간의 양적 측정보다는 제공한 시간의 내용과 질을 설명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돌보기 제공에 있어서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돌보기 제공과 더불어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의 다른 유형의 자원이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ark & Lambert, 1997).

가정관리학적 접근의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 사이의 자원이전에 관한 최근 연구(Koh & MacDonald, 2006; Hayhoe & Stevenson, 2007)에서는 자원이전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포괄적으로 변화하여 공간자원, 시간자원, 금전적 자원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Koh와 MacDonald(2006)는 자원이전의 개념에 다양한 형태의 자원을 함께 포함해야 하며, 이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사항임을 강조한다. 부모 자녀 간의 자원이전은 동시에 여러 형태의 자원이 이전되기도 하며, 특정 종류의 자원을 다른 종류의 자원으로 대체하여 이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2.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이론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적 자원이전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타주의론(Altruism Theory)과 교환이론(Exchange Theory)을 들 수 있다. 이타주의론은 Becker (1991)를 중심으로 한 신고전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소개된 이론으로 가계(household)가 아닌 가족(family)을 경제적 의사결정의 단위로 보고, 이타적인 가장과 이기적인 가족구성원들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다룬 이론이다. 이타적 가장은 가족원들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 자신의 복지(well-being) 수준이 높아지는 존재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효용이 증대되는 반면 이타적인 가장의 복지수준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한 가족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부모의 행복은 자녀들의 행복에 기인한다는 점을 경제효용함수로 표현했는데, 이타적 가장(부모)의 효용함수를 결정짓는 요소에 가족구성원(자녀들)의 효용함수가 포함되는 것이다.

부모 자녀 간의 자원이전을 보상적 이타주의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이타적인 부모는 자녀들 모두가 적정수준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여야 본인 스스로의 복지증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없는 자녀들, 즉 다른 자녀와 비교하여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여 소비수준을 높여주어 복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결국 이러한 자원이전은 부모 자신의 복지감 증진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보상적 이타주의론은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를 더 많이 도와주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타주의론을 부모로부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한정하지 않고, 역으로 자녀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으로 확장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보상적 이타주의론을 적용하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성인자녀의 효용함수에 노부모의 효용함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해야만 자녀 자신이 행복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경제

적으로 어렵거나 질병을 앓고 있을 때,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원이전을 통해서 부모의 복지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의 복지감을 증진시키려 할 것이다.

교환이론에 따르면 자원의 제공자가 자원이전을 이용해서 자원의 수혜자로부터 미래에 되돌아 올 것으로 예측되는 자원에 대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교환이론에서 호혜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 자원이전에 대한 보상은 즉시 나타날 수도 있고, 먼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일 수도 있다(Sabatelli & Shehan, 1993).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자원이전이 가져다 줄 보상(rewards)과 경제적 자원이전에 따르는 비용(cost)을 계산하여 보상이 더 클 때 성립된다고 본다. 따라서 자원의 제공자는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여, 보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 자원을 이전 한다는 것이다.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부모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을 더 높은 수준으로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게 되므로, 앞으로의 보상을 예측할 수 있는 현재의 지표로 소득, 자산,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는 앞으로 더 능력 있고 부유할 가능성이 높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자원의 교환 뿐 아니라, 현재 부모가 이전하는 자원과는 다른 형태의 자원으로 보상을 기대하는 경우도 설명이 가능하다.

교환이론을 부모의 유산상속 행동에 적용한 연구로 Bernheim, Shleifer와 Summers(1985)의 전략적유산상속모형이 있다. 전략적유산상속모형은 부모가 자신이 자녀들에게 유산상속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성장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에 바탕을 둔다. 이 모형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을 경우 부모에 대한 배려와 관심정도가 높은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녀들은 상속받을 유산을 염두에 두고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신에게 더 잘 하는 자녀에게 보상의 차원으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며, 자녀의 경우는 자신들이 제공하는 금융 자산의 이전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물려줄 자산이 있는 부모에게 더 잘 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성인자녀들과 노부모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은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자산보유 정도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특히 여러 명의 성장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가 물려줄 재산(주식, 채권, 부동산)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부모방문 및 연락 횟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heim, Shleifer & Summers, 1985).

교환이론의 관점에서는 자녀가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원이전을 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유기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부모를 버리는 행위 등이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교환이론에서 중요시 하는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와 같이 유산상속이나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자원이전 행동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치매 부모에게 자원이전을 한다면 이는 교환이론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자녀들의 자원이전 행동이 과거 부모로부터 제공되었던 자원이전에 대한 보상이

라면 교환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대한 미래의 보상 가능성을 통제하고, 현재의 자원이전 행동이 과거에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했던 자원이전에 대한 보상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이타주의론과 교환이론을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들은 주로 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경제적 자원 이외의 자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전에 이들 이론은 적용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환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3. 선행연구 고찰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부모의 특성과 자원, 자녀의 특성과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자원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원 제공자와 수혜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자원이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하였고, 그 외에 부모와 자녀의 성별, 연령, 취업여부, 가족사항, 거리 등도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왔다.

#### 1) 호혜성

가족 구성원 간, 세대 간의 자원이전이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는 호혜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교환이론적 관점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은 호혜성을 규명할 수 있는 주요 변인으로 현재의 자원 수혜자로부터 과거에 이전받은 자원을 꼽았다. 예를 들면 현재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 상호호혜성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변인으로 부모로부터 과거에 제공받은 경제적 자원, 손자녀 돌보기, 가사일 돕

기, 정서적 지원 등이 고려되었다.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자료를 분석한 Koh와 MacDonald(2006)는 미국의 성인자녀와 노부모 사이의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에서 과거에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자원이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특성, 부모의 경제적 자원, 자녀의 특성, 자녀의 경제적 자원을 통제했을 때, 과거에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자원이전이 현재 성인자녀의 부모에 대한 시간자원 이전, 돌보기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자원이전의 여부가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 이전 및 부모와의 동거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자녀 간의 자원이전 행동에 있어서 같은 종류의 자원이전을 통한 호혜성은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자원이전을 통한 호혜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Henretta와 동료연구자들(1997)은 과거에 이루어진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자녀가 부모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미국의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 (AHEAD)를 분석하여 확대가족내의 성인자녀들 중 누가 배우자가 없는 부모에게 돌보기 제공을 하는가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은 자녀가 받지 않은 자녀에 비하여 현재 부모에게 돌보기 제공을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자원이 현재의 부모에게 시간자원 제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결론지었다.

앞의 두 연구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이전이 현재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시간자원이전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반면, Cox와 Rank(1992)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시간자원이전이 미래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자녀의 시간자원이전이 미래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 2) 경제적 자원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는 자원 제공자와 수혜자가 보유한 경제적 자원의 수준이다. 본 연구는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을 다루고 있으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자원 보유 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요 관심으로 삼았다. McGarry와 Schoeni(1995)는 미국의 Health and Retirement Study(HRS)를 분석하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균등하게 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녀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McGarry와 Schoeni (1997)는 Asset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AHEAD)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앞선 1995년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 바, 부모로부터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은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제공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장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확률을 추정하는 로짓모형을 분석했는데, 자녀의 소득이 낮은 범주에 속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 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McGarry(1999)는 자녀의 경제적 자원 보유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여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연구했다. 그의 연구모델은 자녀의 현재소득, 자녀의 주택소유의 유무, 교육수준(평생소득의 대체변수)을 경제적

자원을 측정하는 변수로 사용하였다. HRS와 AHEAD의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소득이 낮을수록,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녀일수록, 그리고 평생소득의 대체변수인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Pezzin과 Schone (1999)도 AHEAD의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친부모자녀와 양부모자녀 간의 자원이전 연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 수혜기회가 많고 그 금액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반면 Cox (1987), Cox와 Rank(1992)는 성장한 자녀의 소득과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 액수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National Survey on Families and Households(NSFH)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수혜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이전 액수가 많아지며, 경제적 자원이전 수혜 기회도 높아진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MacDonald와 Koh(2003)는 최근 10년 간 한 가족 안의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유산상속과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소득수준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서구사회에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몇몇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부유할수록 경제적 자산의 이전을 받을 확률이 적으며 성인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확률을 높이는 결정적인 변수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McGarry & Schoeni, 1995; Boaz, 1999).

부모에게 제공하는 돌보기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원 제공자와 임금율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Sloan 등(1997)은 미국의 National Long-term Care Survey를 분석한 결과 몸이 불편한 노부모에게 주된 돌보기제공의 역할을 하는 자녀의 임금율은 돌보기를 제공하는 시간과 부적

(-)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다른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변수들(부모의 자산, 자녀의 자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를 분석한 Couch 등(1999)의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했는데, 미혼의 아들 딸, 기혼 아들의 임금율과 부모를 위한 시간제공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구사회학적 변수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교육수준의 영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나,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대한 연구들은 제공자의 교육수준이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수라고 보고했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확인된다(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7; Pezzin & Shone, 1999). 즉 경제적 자원 제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시간 자원 이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자녀의 교육수준이 노부모에 대한 자녀의 시간제공이나 돌보기제공을 결정짓는 변수라고 보고했다. Henretta 등(1997)은 한 가족 안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자녀가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보다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은 교육수준은 임금율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돌보기 제공의 경향을 임금율과 연관 지어 해석하였다. 즉 자녀의 교육수준과 노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결혼상태는 자원이전의 수혜자, 기부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경제적 자원이전에 있어서 가계의 소득과 부가 일정한 경우 결혼한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보다 부모로부터 금융자산의 이전을 제공받는 경향이

더 낮았다(McGarry, 1999; McGarry & Schoeni, 1997). 시간자원 제공에 있어서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주된 돌보기 제공자의 역할을 하거나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고(Dwyer & Cowark, 1991; Sloan, Picon, & Hoerger, 1997; Pezzin & Schone, 1999), 홀로 지내는 부모들이 배우자가 있는 부모들 보다 자녀로부터 시간제공을 받는 경향이 더 높다(Couch, Daly, & Wolf, 1999; McGarry & Schoeni, 1995).

성인자녀의 형제가 많을수록 주된 돌보기 제공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 적지만, 노부모의 입장에서는 성인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시간제공이나 돌보기 제공을 받는 경향이 높았다(Dwyer & Coward, 1991; Sloan, Picone, & Hoerger, 1997; Wolf, Freedman, & Soldo, 1997). 이 밖에도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성별(Cox & Rank, 1992; Dwyer & Coward, 1991; Henretta et al., 1997; Marks, 1996; McGarry & Schoeni, 1997, Pezzin & Schone, 1999), 건강상태(Couch, Daly, & Wolf, 1999; Dwyer & Cowark, 1991; McGarry & Schoeni, 1997; Sloan, Picon, & Hoerger, 1997),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연령(Marks, 1996) 등이 확대가족 내의 자원이전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들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적 자원이전은 정적인(+) 관계이며(Cox & Rank, 1992; McGarry, 1997; McGarry & Schoeni, 1997), 돌보기 제공에도 정적(+)(Dwyer & Coward, 1991)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과거에 자녀가 부모로부



터 받았던 경제적 지원, 가사일(육아) 지원, 유산상속 등 과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자원이전이 현재 자녀가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자원이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원이전을 경제적 자원이전, 시간 자원이전의 측면에서 다루었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한 생활비, 용돈, 간병비, 병원비 등을 포함한 금전적 자원을 의미한다. 시간자원의 이전은 간병, 목욕, 일상생활 돕기, 가사일 돕기 등을 포함하는 돌보기를 통한 시간자원 이전과 단순방문을 위한 시간자원 제공으로 나누었다. 이는 시간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돌보기 제공은 자녀의 노동력 및 강도 높은 행위가 요구되는 시간자원이전이고, 방문은 일회적이고 일상적이며 노동력제공이 수반되지 않는 시간자원이전이다.

특히 부모·자녀 간의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적 수준, 교육수준, 혼인여부 등의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과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았던 자원이전이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의 요구, 부모의 자원, 자녀의 자원, 형제자매의 자원이전을 통제했을 때,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이전이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모의 요구, 부모의 자원, 자녀의 자원, 형제자매의 자원이전을 통제했을 때,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이전이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시간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치매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원이전이다. 치매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원이전을 경제적 자원이전과 시간자원이전으로 나누었고, 시간자원과 관련해서는 제공하는 시간의 질적 측면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사노동, 간병, 목욕, 일상생활 돕기 등을 제공하는 돌보기 제공과 노동력 제공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방문을 각각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호혜성을 검증할 수 있는 변수들로서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부모의 가사 및 육아 지원, 유산상속 등이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이전, 가사/육아 제공은 과거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한 자원이전을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이 변수들이 현재 자녀가 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과거와 현재의 행동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산상속의 예정여부가 현재의 치매부모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재와 미래의 행동 사이에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있다고 본다.

통제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부모의 요구, 자원, 자녀의 자원, 형제자매의 자원이전 등을 나타내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치매부모가 자녀로부터의 자원이전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를 넣었으며, 치매부모의 자원으로 유배우자(배우자생존), 자산을 사용하였다. 자원이전의 제공자의 자원 보유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형제자매의 수, 자산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치매부모에게 자원이전을 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로 형제자매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형제자매의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와의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방법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경제적 자원이전 돌보기 제공 방문	1=지난 1년간 치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 이전을 했음 0=하지 않았음 1=치매 부모에게 돌보기 제공 했음 0=하지 않았음 1=주 1회 이상 치매부모 방문(동거포함) 0=주1회 이상 방문하지 않음
<b>독립변수</b> <b>호혜성</b>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부모의 가사/육아 제공  유산상속	1=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았음, 0=받지 않았음 성인이 된 이후에 치매부모로부터 가사 및 육아 지원을 받은 정도를 1=전혀 없다 3=보통이다 5=매우 많다 1=부모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을 예정임, 0=없음.
<b>통제변수</b> <b>부모의 특성</b> 성별 연령 건강상태 유배우자 자산 <b>자녀의 특성</b>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큰아들(딸) 형제자매의수 자산  <b>기타</b>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 부모와의 거리	1=남성 0=여성 만 나이 1=치매 경증 2=치매 보통 3=치매 중증 1=배우자 생존 0=배우자 사망 부모의 총 자산규모(만원)  1=남성 0=여성 조사대상자의 만 나이 1=기혼 0=미혼, 사별, 이혼, 별거 1= 대졸이상(중퇴포함) 0=고졸 이하 1=조사대상자가 장자 또는 장녀, 0=장자 또는 장녀 아님 조사대상자의 생존에 있는 형제자매의 수 조사대상자 가계의 총 자산규모(만원)  1=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지난 1년간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0=경제적 자원이전 안함 1=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치매부모에게 돌보기 제공 0=돌보기 제공 안함 치매부모 방문 시 소요되는 시간거리(시간)

거리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 치

매를 앓고 있는 성인남녀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을 사용한 면접조사, 전화조사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의 공공의료원 3개소, 보건소 5개소, 치매노인요양시설 6개소, 지역시민단체 5개 등의 협조를 얻어 임의표집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550부의 설문

지를 배포하였으나, 부실기재 된 설문지, 치매 부모의 며느리(사위)가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 하여,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은 성인자녀 343명이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PC SPSS Program(Ver 14.0)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부모의 자원이전 요구와 자원, 자녀의 자원 등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자원이전의 중복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 중 부모의 자산과 조사대상자의 자산은 심각한 편포로 인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시 가변수로 사용하였다.

#### IV. 분석 및 결과

##### 1.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부모의 특성 및 자녀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치매 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실태를 살펴보면(<표 2> 참조), 전체 조사대상자 중 86.3%인 296명이 지난 1년 동안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돌보기 제공은 59.8%, 주1회이상 방문은 54.8%가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경제적 자원교류에 관해 노동패널 6차 자료를 분석한 김지연(2006)의 연구에서는 전체 성인자녀 가구 중 가구주 및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교류하는 가구는 전체 2,485 가구 중 1379가구인 약 55.4%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김지연(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표본의 86.3%가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한 것은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치매라

는 특수한 상황이 가져온 결과라 생각한다.

조사대상자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자원이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41.4%가 과거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치매부모로부터 과거에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았는가에 대해서 5점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3.33점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유산상속이 예정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23.9%였다.

조사대상자의 치매부모의 68.2%는 여성이었고, 연령은 최소 41세부터 최대 101세 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78.44세였다. 건강상태는 치매의 진행정도를 3점 척도로 질문하였는데, 평균 1.81로 나타났다. 치매부모의 29.2%가 배우자가 생존에 있었으며, 소유한 자산규모는 평균 17,579만원이었다. 자산규모의 편차가 커서 1000만원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비율이 17.8%였으며, 2억5천만원 이상 소유한 비율이 17.8%였다.

조사대상자의 33.8%가 남성이었고, 연령은 평균 47.17세였으며, 최소 24세에서 최대 74세 까지 분포하였다. 84.3%가 기혼이며, 59.2%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산규모는 평균 37,450만원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들이 치매부모에게 지난 1년 간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경우가 60.3%, 돌보기를 제공한 경우가 58.9%로 나타났다.

##### 2.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중복성

경제적 자원과 시간자원의 이전이 어느 정도 중복되어 제공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경우 돌보기를 함께 제공하는 비율이 64.1%,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 돌보기 제공도 하지 않는 비율이 66%로 나

〈표 2〉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부모의 특성 및 자녀의 특성

(n=343)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원이전		296	86.3		
시간 자원이전	돌보기 제공	205	59.8		
	방문(주1회 이상)	188	54.8		
과거 부모로부터의 자원이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142	41.4		
부모의 가사/육아 제공				3.33	1.06
유산상속		82	23.9		
형제자매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경제적 자원 이전		207	60.3		
돌보기 제공		202	58.9		
부모의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여성)		234	68.2		
연령				78.44	8.29
건강상태				1.81	0.72
유배우자		100	29.2		
자산(만원)				17,579.77	26,645.51
하(1,000만원 이하)		61	17.8		
중(1,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		181	52.8		
상(2억5,000만원 이상)		61	17.8		
무응답		40	11.7		
자녀의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성별(남성)		116	33.8		
연령				47.17	8.99
혼인상태(기혼)		289	84.3		
교육수준(대졸)		203	59.2		
형제자매의수				3.27	2.05
자산(만원)				37450.58	111271.50
하(5,000만원 이하)		37	11.7		
중(5,000만원 초과 4억원 미만)		177	51.6		
상(4억원이상)		102	29.7		
무응답		27	7.9		
기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		207	60.3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		202	58.9		
부모와의 거리(분)				92.13	98.82

타났다.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과 돌보기 제공을 함께 제공하거나, 둘 다 제공하지 않는 경향이 둘 중에 하나만 제공하는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주1회 이상 방문의 중복성 경우도,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조사대상자 중 주1회 이상 방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7.1%,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는 조사대상자들 중 주1회 이상 방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57.4%로 나타나, 경제적 자원이전과 방문도 함께 제공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양상은 경제적 자원이전과 시간자원이전이 함께 제공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은 하나의 자원이전을 통해서 다른 자원의 이전을 대체하기 보다

는 서로 보완적 측면에서 함께 제공되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돌보기 제공과 경제적 자원이전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Boaz et al, 1999; Koh & MacDonald, 2006).

조사대상자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조사대상자 형제자매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돌보기 제공의 중복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조사대상자의 64.5%는 형제자매들이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치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은 조사대상자의 66%는 형제자매들도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우 형제자매와 함께 제공하거나, 함께 제공하지 않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중복성

조사대상자의 자원이전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이전		$\chi^2$
		무 빈도(%)	유 빈도(%)	
돌보기 제공 (n=342)	무	31(66.0)	106(35.9)	12.22***
	유	16(34.0)	189(64.1)	
주 1회 이상방문(n=341)	무	27(57.4)	126(42.9)	3.48 *
	유	20(42.6)	168(57.1)	
조사대상자와 형제자매의 자원이전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이전		$\chi^2$
		무 빈도(%)	유 빈도(%)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n=343)	무	31(66.0)	105(35.5)	15.75***
	유	16(34.0)	191(64.5)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n=343)	무	26(55.3)	115(38.9)	4.543**
	유	21(44.7)	181(61.1)	
조사대상자와 형제자매의 자원이전		조사대상자의 돌보기 제공		$\chi^2$
		무 빈도(%)	유 빈도(%)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n=342)	무	62(45.3)	74(36.1)	2.875 *
	유	75(54.7)	131(63.9)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 (n=342)	무	67(48.9)	74(36.1)	5.56**
	유	70(51.1)	131(63.9)	

\*p< 0.1 \*\*p< 0.05 \*\*\*p< 0.01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은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의 비율이 61%로 나타난 반면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지 않은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들이 돌보기를 제공한 비율이 44.7%, 제공하지 않은 비율이 55.3%로 차이가 줄어든 양상을 보인다( $\chi^2$ 검정결과 유의수준  $\alpha=0.05$ 에서는 유의하나  $\alpha=0.01$ 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치매부모에게 돌보기 제공을 하는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가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비율이 63.9%로 나타났으나, 치매부모에게 돌보기 제공을 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형제자매가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는 비율이 54.7%로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하지 않는 비율 4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chi^2$ 검정결과 유의수준  $\alpha=0.1$ 에서 유의).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은 조사대상자가 치매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우의 63.9%는 형제자매들이 돌보기를 제공하였으며, 돌보기 제공을 하지 않는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들은 48.9%가 돌보기 제공을 하지 않았고, 51.1%는 돌보기 제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우 자녀들이 함께 제공하거나, 함께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는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자녀 공동으로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한 자녀가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면, 다른 자녀는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아 자녀들 간에 보완적인 자원제공 또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 3.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조사대상자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사용한 변수들 중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는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할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 자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영향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산상태를 통제변수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험이 현재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가의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odds ratio가 7.591로 다른 독립/통제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이 된 후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자녀들과 비교했을 때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범주에 들어갈 확률이 7.6배의 높다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자녀가 후에 부모가 치매를 앓고 있을 때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일반 성인자녀와 노부모의 자원이전에 대해 연구한 고선강(2005)과 Koh와 MacDonald(2006)의 연구결과와는 다르다. 이들 연구에서는 과거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험이 부모에 대한 현재의 돌보기제공, 시간자원제공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

을 보이지 않아,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은 다른 종류의 자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치매부모

가 제공한 ‘부모의 가사/육아 제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나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 이전의 호혜성은 같은 종류

〈표 4〉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 이전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통제변수	종속변수		시간자원이전			
	경제적 자원이전 (n=294)		돌보기 제공 (n=293)		방문 (n=293)	
	B	S.E.	B	S.E.	B	S.E.
<b>독립변수</b>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2.027 ***	0.591	-0.158	0.327	-0.457	0.356
부모의 가사/육아 제공	0.145	0.219	0.264 *	0.156	0.379 **	0.173
유산상속	-0.504	0.656	0.068	0.428	0.823 *	0.480
<b>통제변수</b>						
<b>부모의 요구</b>						
성별(여성=1)	-0.191	0.492	0.256	0.335	0.328	0.373
연령	0.024	0.033	-0.035	0.023	-0.037	0.024
건강상태	0.023	0.324	0.285	0.224	0.191	0.238
<b>부모의 자원</b>						
유배우자	-0.337	0.518	-0.124	0.355	0.122	0.394
자산(준거집단:중)						
하	1.012	0.663	0.432	0.423	0.547	0.446
상	-1.145	0.723	0.589	0.492	1.176 **	0.584
무응답	0.516	0.721	1.157 *	0.595	0.869	0.566
<b>자녀의 자원</b>						
성별(남성=1)	0.325	0.478	0.379	0.319	-0.366	0.338
연령	-0.014	0.031	0.046 **	0.022	0.003	0.023
혼인상태(기혼=1)	0.526	0.582	0.127	0.439	-0.909 *	0.500
교육수준(대졸이상=1)	0.251	0.469	-0.559 *	0.326	-0.148	0.347
형제자매의수	-0.083	0.115	-0.021	0.080	0.034	0.089
자산(준거집단: 중)						
하	-1.356 **	0.630	-0.600	0.541	0.047	0.575
상	0.402	0.609	-0.147	0.406	0.120	0.453
무응답	0.729	0.830	-1.153 *	0.657	0.711	0.760
<b>기타</b>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	1.844 ***	0.533	0.218	0.335	-0.385	0.362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	0.161	0.490	0.933 **	0.349	0.918 **	0.385
부모와의 거리	-0.003	0.002	-0.012 **	0.002	-0.021 **	0.003
상수	-1.071	2.302	-0.078	1.626	2.860	1.810
-2 log likelihood(fitted)	167.45		303.01		271.15	
Model Chi-square	47.18***		92.02***		133.22***	

\*p< 0.1 \*\*p< 0.05 \*\*\*p< 0.01

의 자원이전을 통해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치매부모의 요구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자산과 형제자매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자녀의 자산수준 ‘중’(5천만원 이상 4억원 미만)과 비교했을 때, 자산수준 ‘하’(5천만원 미만)에 있는 자녀들이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가 자원이전에서 자원제공자의 경제적 수준과 경제적 자원이전이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MacDonald & Koh, 2003; Koh & MacDonald, 2006; 김지연, 2006)의 결과를 지지한다.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치매부모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관계가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있는 경우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확률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즉 부모의 치매는 확대가족 내의 자원을 동원하게 하는 요구이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들이 함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자녀들이 공동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의 치매는 자녀들이 공동으로 나누어야 할 만큼의 커다란 경제적 요구를 유발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 4.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시간자원이전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시간자원이전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전의 호혜성 관련 변수는 ‘부모의 가사/육아 제공’으로 나타났다. 성인자녀가 과거에 치매부모로부터 가사일이나 육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수록

치매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유산상속’이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과거에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현재의 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라고 보고한 Henretta 등(1997), 고선강(2005), Koh와 MacDonald(2006)의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호혜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이전만을 포함시켰으며, 과거 부모로부터 제공받은 돌봄이 현재 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는 부모 자녀간 자원이전의 상호호혜성이 같은 종류의 자원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치매부모의 특성 중 자산의 무응답 범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녀의 특성 변수 중 연령, 교육수준, 자산의 무응답 범주, 그리고 기타 변수 중에서 부모와의 거리,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의 자산 중 무응답 범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자산을 모르거나, 답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들이 부모의 자산수준을 ‘중’(1,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들보다 돌보기 제공을 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과 돌보기 제공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부모의 자산을 무응답이라고 답하는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그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의 확률이 높고, 자녀가 대졸 이상의 학력인 경우 돌보기 제공의 확률이 낮으며,



부모와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돌보기 제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자녀의 교육수준과 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의 부적(-)관계는 한 가족 안에서 교육수준이 낮은 자녀가 교육수준이 높은 자녀보다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Henretta 등(1997)의 연구를 지지하며, 또한 부모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돌보기 제공의 경향이 높아진다는 Dwyer와 Coward(199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과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이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은 형제자매들의 돌보기 제공이 있을 때 성인자녀들의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의 경향이 더 높아짐을 의미한다. 즉 형제자매 중 한사람이 치매 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하면, 다른 형제자매도 돌보기 제공을 할 경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조사대상자의 돌보기 제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치매부모에 대한 주1회 이상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호혜성 관련 변수는 '부모의 가사/육아 제공'과 '유산상속'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부모로부터 가사일이나 육아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수록 주1회 이상 치매부모를 방문하는 경향이 높아지며, 앞으로 유산상속이 예정되어 있는 자녀인 경우 주1회 이상 치매부모를 방문하는 경향이 높다. 치매부모에 대한 방문은 과거와 현재의 자원이전의 호혜성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 치매부모로부터 가사일이나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은 자녀가 현재 치매부모를 열심히 방문하며, 미래에 유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자녀가 현재 치매부모와 빈번하게 접촉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Bernheim, Shleifer와 Summers(1985)가 주장한 전략적 유산상속모델을 일부 지지한다

고 볼 수 있다.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및 돌보기 제공과는 달리 치매부모 방문에 대해서 부모의 자산수준이 매우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산수준이 '상'(2억5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산수준 '중'(1,000만원 초과 2억5,000만원 미만)과 비교했을 때, 치매부모를 주1회 이상 방문하는 경향이 3.2배 높았다(odds ratio=3.242). 부모의 자산은 치매부모 방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 중 그 영향력이 가장 컸다.

성인자녀가 기혼이 아닌 상태인 경우 치매부모를 주1회 이상 방문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는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부모에게 돌보기를 제공하는 경향이 높다(Dwyer & Cowark, 1991; Sloan, Picon, & Hoerger, 1997; Pezzin & Schone, 1999)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부모와 지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주1회 이상 방문을 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형제자매의 돌보기 제공과 조사대상자의 치매부모 방문의 관계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자원이전, 가사 및 육아 제공, 유산상속 등이 치매부모에 대한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전, 시간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과거에 제공한 자원이전과 미래의 자원이전에 대하여 자녀에게 한 약속(유산상속)이 현재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의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은 경제적 자원이전과 시간자원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성인자녀 중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경우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시간자원이전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의 자원을 제공하는 자녀의 경우,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자녀와 비교했을 때, 자원의 제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접촉할 기회가 늘어나며,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더 민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는 부모의 치매가 여러 가지 자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부모의 요구에 따라 부모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모두 제공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인 성인자녀와 그 형제자매들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 양상을 분석한 결과,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높아서, 자녀가 치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한 경우 그의 형제자매도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우리사회의 장남이 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던 전통이 자녀들이 공동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형태로 변화한, 사회 변화가 자원이전 행동에도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부모·자녀 간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는 변수인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 ‘부모의 가사/육아 제공’, ‘유산상속’은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돌보기 제공, 방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과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현재 자녀가 치매부모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종류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지지하였다. 또한 과거에 치매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한 가사/육아 제공의 정도가 현재 성인자녀가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 제공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자원이전과 유사하게 동일한 종류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지지하였다. 반면,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방문은 과거 치매부모가 제공한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도움 정도와 예정된 유산상속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자원이전의 호혜성과 전략적유산 상속모델을 일부 지지하였다.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및 돌보기 제공이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자원이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치매부모에 대한 방문은 미래에 부모로부터 주어질 자원이전에 대한 약속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다.

셋째, 자원의 제공자 및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부모의 자산과 자녀의 자산 중 부모의 자산수준만이 치매부모에 대한 방문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및 돌보기 제공에는 자원 제공자와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자산상태가 좋은 경우 자녀들이 주1회 이상 방문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자원 이전의 질적 특성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산규모가 크고 상속할 유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녀의 돌보기 제공 또한 간병인이나 도우미에 의해서 대체시킬 수 있어 자녀들의 직접적인 돌보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낮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래의 유산상속에 대한 보답으로 현재 치매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단순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 치매부모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나 돌보기 제공과는 달리 치매부모에 대한 방문이 부모로부터의 유산상속과 부모의 자산수준에 유의한 영

향을 받는다는 점은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종류에 따라 자원이전의 동기가 명확히 달라짐을 의미한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형제자매들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이 조사대상자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했다. 형제자매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치매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을 할 확률이 높아지며, 형제자매의 치매부모에 대한 돌보기제공이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치매부모에게 돌보기제공, 주1회 이상 방문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대가족의 치매부모에 대한 공동부양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장자에 의한 부모부양의 형태가 아닌 자녀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전을 통해 부모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것이다. 치매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은 자녀들로부터 공동으로 지원됨을 의미하는데, 이는 치매부모 부양을 위한 자원에 대한 요구가 공동 부담을 필요로 할 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에 비하여 평균수명은 길어졌으나 그와 비례하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건강 수명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 부양에 요구되는 자원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자녀들의 다양한 자원이전을 통해 공동 부양되고 있으나, 이를 개별가정이 확대가족 내의 자원 배분으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개별가정의 치매부모에 대한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뿐 아니라, 치매부모 부양을 위한 확대가족 내의 다양한 자원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치매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성인자녀와 치매부모 사이의 자원이전의 호혜성이 지지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자원이전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회상적인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인 성인자녀로부터 치매부모에 대한 정보 및 형제자매들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측정상의 한계가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자원을 함께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각각의 자원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산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그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를 위해서 확대가족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패널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축적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최근 한국노동패널 고령자조사자료, 노후부양패널 등에 세대 간 자원이전을 조사하는 문항들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고선강(2005). 미국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87-195.
- 2)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8.
- 3) 김지경, 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4) 김지연(2006). 성인자녀와 부모간 경제적 자원교류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 학위 논문.
- 5) 배희선(199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6)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7) Altonji, J. G., Hayashi, F., & Kotlikoff, L. J. (1992). Is the extended family altruistically linked?. Direct tests using micro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2, 1177-1198.
  - 8) Becker, S. (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9) Bernheim, B. D., Shleifer, A., & Summers, L. H. (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 1045-1076.
  - 10) Boaz, R. F., Hu, J., & Ye, Y. (1999). The transfer of resources from middle-aged children to functionally limited elderly parents : Providing time, giving money, and sharing space. *The gerontologist* 39, 648-657.
  - 11) Cox, D. & Rank, M. R. (1992).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rgenerational exchang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4(2), 305-314.
  - 12) Cox, 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508-546.
  - 13) Dunn, T. A., & Phillips, J. W. (1998).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nd children's income (Aging Studies Program Paper No.14). New York : Syracuse University, Maxwell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nomics of Aging.
  - 14) Freedman, V., Wolf, D. A., Soldo, B. J., & Stephen, E. H. (1991). Intergenerational transfers : A question of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1, 640-647.
  - 15) Hayhoe, C. R., & Stevenson, M. L. (2007). Financial attitudes and inter vivos resource transfers from older parents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 123-135.
  - 16) Henretta, J.C., Hill, M.S., Li, W., Soldo, B.J., & Wolf, D. A. (1997). Selection of children to provide care : the effect of earlier parental transfers.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110-119.
  - 17) Koh, S., & MacDonald, M. (2006). Financial reciprocity and elder care : Interdependent resource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 420-436.
  - 18) MacDonald, M. M. (1989). *Family Background, the Life Cycle, and Inter-household Transfers* (NSFH working paper No. 13).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 19) Macdonald, M. M. & Koh, S. (2003). Consistent motives for inter-family transfers.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4(1), 73-98.
  - 20) Marks, N. F. & Lambert, J. D.(1997). *Family caregiving :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NSFH working paper No. 78). Madison : University of Wisconsi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 21) Marks, N. F. (1996). Caregiving across the lifespan : National prevalence and predictors. *Family Relations* 45, 27-36.
  - 22) McGarry, K. (1999).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intended bequest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3, 321-351.

- 23) McGarry, K. & Schoeni, R. F. (1995). Transfers behavior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tudy : Measurement and the re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family.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84-226.
- 24) McGarry, K. & Schoeni, R. F. (1997). Transfers behavior within the family : Results from the asset net worth and health dynamics study. *Th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25) Pezzin, L. E. & Schone, B. S. (1999). Parental marital disruption and intergenerational transfers : an analysis of lone elderly parents and their children. *Demography* 34, 297-297.
- 26) Sabatelli, R. M. & Shehan, C. L. (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 A Contextual Approach*, 385-411. New York : Plenum Press
- 27) Sloan, F. A., Picone, G., & Hoerger, T. J. (1997). The supply of children's time to disabled elderly parents. *Economic Inquiry* 35, 295-308.
- 28) Soldo, B. J. & Hill, M. S. (1995). Family structure and transfer measures in the health and retirement survey : Background and overview.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30S, 108-137.
- 29) Tomes, N. (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28-968.
- 접수일 : 2008년 4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4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7일